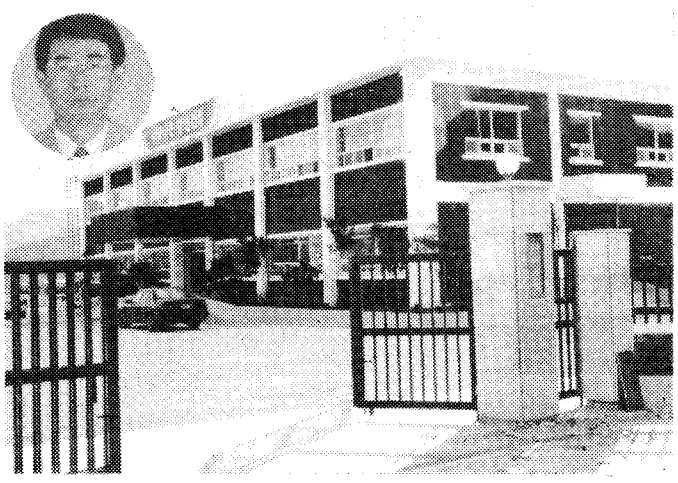
최북단의 약초연구기관

약초연구기관을 찾아서 ⑥

철원특작시험장



◇시험장은 지난달23일 준공식을 가졌다. (원내 김승경 장장)

우리나라 최북단인 강원도 철원에 약초전담연구기관인 특작시험장(장장·김승경)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내 약초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철원은 민통선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 자생약초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자원식물의 보고라 할 만하다.

바로 이곳에, 수입개방화에 대응 민통선 지역 고소득화 약초류 개발을 목표로 탄생된 철원특작시험장은 철원지역 답작위주 단순영농 형태를 탈피, 고소득작목 개발·보급은 물론 향토농특산물로 상품화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준공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특작시험장은 현재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등 총 6명으로 정원 16명에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지만 연구열 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지난해 부터 이미 준비작업에 착수한 시험장 측은, 이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시호, 일당귀, 천궁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재배기술상의 문제점들을 토대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우선, 철원에서 많이 나는 삼지구엽초를 작물화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음양곽이라 일컬어지는 삼지구엽초는 철원일대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는 야생종으로, 수요량이 많은 약초중의 하나지만 작물화 재배기술은 전무한 실정인 것.

김승경 장장은 『음양곽의 발아 및 번식방법을 구명, 대량생산체제를 개발해 냄으로서 농가 고소득 작물로 육성할 계획이며 차·음료 등 가공식품으로의 개발 연구도 함께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다.

노준현 육종재배연구실장은 『이곳이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민통선 지역의 무한한 자생약초 유전자원을 수집, 이들 희귀약초들로 시험포를 특색있게 꾸밀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밖에도 시험장은 △유전자원 수집을 통해 생육특성 이용 가능성 검토 △우량종 선발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 신품종 육성 △대량번식방법 연구 △농업기계화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품종별 토양별 약효성분 검토로 고품질 약초개발 △건조 및 저장기술 개발 △가공상품 개발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오는 2천4년까지 총 28억4천7백 만원을 투자 산·학·연·공동연구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가공이용기술 분야는 장기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 철원특작시험장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위해, 약재 세척에서 부터 살균·발효·포장 등 일체의 가공시설 여건을 갖춘 약초 가공실을 설비중이다.

이제 머지않아 이곳 청정지역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약초가 개발돼 철원의 특산물로 선보이게 될 날을 꼽아본다.

민통선지역, 다른지역서 볼수없는 희귀·자생약초 다양

기고

국내 생약업계의 문제점

국내 생약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영 도매시장 한곳 없다는 점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한방의료보험의 실시등에 힘입어 지난 85년 4천10ha에 불과했던 국내 생약재배면적이 10년사이 4배로 늘어 지난해 1만5천3백ha에 이르고 있으나 공영 도매시장 한곳 없는 것이 오늘의 생약업계 현주소다. 그동안 한국생약협회의 중앙공판장과 대구 약령시장이 생약재의 일부를 경매해오긴 했으나 그나마 협회 공판장은 최근 우수국산한약재직판장으로 탈바꿈한 상태고 대구한약재도매시장은 연간 취급물동량이 50억원어치에 불과, 수천억원대에 추산되는 국내 생약재의 절대물량은 사실 이렇다한 판로를 못찾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약재배농민들은 생약재를 어렵게 생산하고서도 이를 산지수집상등에게 헐값에 넘기며 별 재미를 못보고 있어 일정규모의 공영 도매시장건설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생약재도 엄연히 농민들의 소득작목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농사측면에서는 지황·당귀농사가 무·배추농사와 다를게 없는만큼 이제는 생약재의 유통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인 것이다.

규격화를 통해 생약재의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생약업계가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한약재의 규격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약농민이나 생산자단체를 제외시킨 채 규격품제조업자만으로 규격화하려고 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생약협회가 우수 국산 한약재를 규격화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도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제23조의 「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한약업사는 규격품제조업자가 제조한 규격품이외의 것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생약재도 일반 농산물처럼 표준출하규격만 제정해 놓은뒤 농민과 생산자단체가 표준출하규격에 맞게 출하시키면 규격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생약업계의 바람인 것이다.

이밖에 구기자·오미자·두충등 식품원료로 수입된 생약재가 원형 그대로 시중 유출되고 있는 점도 단속돼야할 부분이다. 또한 농축원액은 제약원료용이란 명목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채 수입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생약재를 원료로 한 치약이 나올만큼 생약재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생약재를 채소나 과일처럼 소득작목화 하는 정책이 아쉬운 때다.

김상현부장(농민신문사)

지황 채굴·저장 요령

수확물의 조제

(1)건지황(乾地黃)

수확한 후 물에 잘 씻어 대칼로 껍질을 벗긴다. 그 다음 통풍이 잘되는 양지에 3~4단의 건조가(乾燥架)를 만들어 대나무 발을 깔고 10㎝ 정도의 두께로 널어서 말린다. 때때로 위 아래 위치를 바꿔 골고루 건조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것을 저장하면 부패하여 상품가치가 없어지므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야외에서 완전건조가 안될 때는 건조실에서 40~50℃의 온도로 건조시키면 된다.

건조된 지황의 수량은 생뿌리의 25%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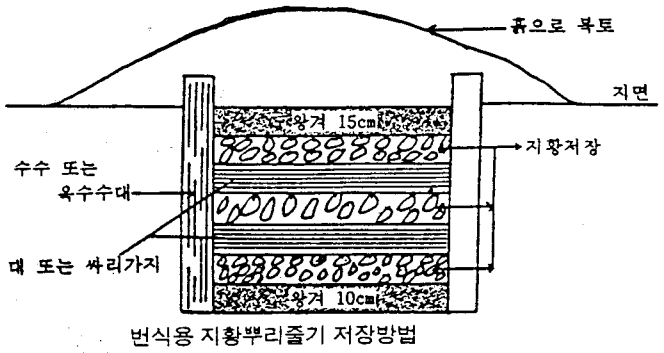
건조된 지황의 수량은 생뿌리의 25%정도가 된다. 수출·입되는 지황은 주로 건지황이다.

저장방법

번식용 뿌리 줄기는 약재용 뿌리를 선별하고 남은 저급품중에서 길이 6㎝, 굵기 0.6㎝ 기준으로 선별하여 하루쯤 햇볕에 말려 저장했다가 쓴다.

저장 구덩이는 종근의 양에 따라 크기를 결정하여 파고 밑에 왕겨를 10㎝ 정도 깔고 종근을 6㎝ 두께로 편다. 그위 대나무나 싸리가지 등을 6㎝ 정도의 두께로 깔고 그 위에 다시 종근을 6㎝ 정도의 두께로 편다.

이렇게 몇겹을 쌓은 다음 위쪽에 다시 왕겨를 10㎝ 이상 덮고 10~15㎝의 공간을 두고 가마니나 판대기를 덮은 다음 흙을 덮어 보온한다. 외부에는 수수대나 옥수수대로 둘러 세운다. 번식용 뿌리 줄기는 3~4월에 씨뿌리로 사용한다.



번식용 지황뿌리줄기 저장방법

채굴방법

10월 하순에서 11월 하순까지 한다.

지역에 따라서 연 평균기온이 영하 5℃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가을에 채굴을 하고 그 밖의 지역은 봄까지 두어도 된다.